도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노력

세종시 건설교통국 건축과
2019. 7. 10.

광주시 도시계획과
2019. 8. 22.

세종시, 항공사진 기록을 도시관리 업무에 활용 시도

세종시는 매년 시 전역에 대해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변동사항을 기록·관리해 도시공간 계획, 산림 및 에너지 관리 등 도시관리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이러한 데이터 축적을 위해 항공사진 촬영 및 디지털 판독 전산화를 위한 용역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항공사진 촬영, 판독, 도시행정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며 고해상도 항공사진 촬영은 올해부터 매년 진행한다.

시는 이를 통해 ▲세종시의 변천 과정 기록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통한 안전도시 기틀 마련 ▲지하구조물과 기반시설 등을 통합한 행정 인프라 구축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구축된 도시행정 인프라 시스템을 서민서비스 제공 등 광범위한 분야에 활용하며, 장기적으로는 스마트시티 분야와 접목할 수 있는 3차원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활용해 세종시의 정책 결정과 행정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사업의 의의를 설명하였다.

광주시, 급변하는 도시경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광주시가 빠르게 변하는 도시경관을 기록물로 남기는 '광주광역시 도시경관 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광주의 과거 모습을 수집하고, 드론 등을 활용해 촬영한 사진으로 현재 경관을 기록하며 아카이브를 구축해 시민과 공유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먼저 기획·연구단계를 통해 경관기록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무등산·영산강·황룡강 등 자연경관과 문화재·학교·건축물·시가지 등 도시 전반에서 기록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촬영 방법과 기록물 활용 및 관리계획 등도 설정할 예정이다.

다음 단계로 주요 경관을 촬영한 후 사진 선별과 보정, 기록물 활용을 위한 설명과 자료 첨부, 옛 사진 수집 등 광주의 다양한 도시경관 이미지를 기록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로 기록물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구축된 기록물을 경관계획 수립, 도시경관 관리 및 홍보, 경관기록 장소의 관광 자원화 등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2020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